

광양시 “가을 기운 가득 담은 섬진강 은빛전어 맛보세요”

갈슌,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 풍부
이달 망덕포구-배알도 보도교 완공
선별진료소 설치 등 코로나 방역강화



광양시 망덕포구

전남 광양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가 광양 망덕포구로 떴어 모이기 시작하는 9월과 10월 전어의 계절을 선포하고 미식 여행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 전어 축제 개최를 포기해 소규모 미식이 외에는 전어를 찾는 인파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어와 섬진강, 망덕포구, 배알도 등은 해마다 광양의 가을을 대표해왔다.

특히 전어 축제는 멈춰있는 상태지만, 전어는 어김없이 풍요로운 가을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다.

맛도 맛이지만 갈슌, 미네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전어는 어린이들의 뼈 성장과 어른들의

혈관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먹거리로 알려져 있다. 망덕포구는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빠른 물살만큼 전어의 운동량이 활발해 탄탄한 육질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포구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망덕포구의 횡집은 회, 무침, 구이 등 다채로운 전어 요리를 맛갈스럽게 차려낸다. 솜뿔솜뿔 썬 전어회를 구수한 된장에 찍어 한입 가득 넣는 순간 우리가 먹는

것이 단지 한 점의 생선회가 아니라 익어가는 가을이란 걸 금세 알게 된다.

섬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나는 전어는 새콤달콤 회무침으로도 인기가 높고, 왕소금을 뿌려 노릇노릇 구워낸 전어구이는 머리까지 통째로 먹을 만큼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전어에는 유쾌하고 해학적인 서사도 가득하다. 전어라는 이름에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 먹을 만큼 맛있다는 뜻

에서 錢漁(전어), 머리부터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먹을 수 있어서 全漁(전어) 등 다양한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머리에 개가 서 말’, ‘가을 전어 한 마리면 햅쌀밥 열 그릇 죽인다’는 말들에 얽힌 서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전어를 맛보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가을 해그림자가 길어지면 포물선을 그리듯 망덕포구를 따라 놓인 데크를 걸어야 한다.

쪽빛 바다를 바라보며 걷노라면 어디선가 뱃머리에 만선 깃대를 꽂고 춤을 추며 가족이 기다리는 망덕포구로 귀향하던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가 들린다.

전남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전승돼온 고기잡이 노동요로 섬진강 하구와 남해안 생태에 깃든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1999년 결성된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를 주축으로 신담마을 주민들에 의해 연행되면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망덕포구는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을 말없이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또 모든 걸 풀어 간직한다.

일제강점기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난 운동주의 유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이곳 망덕포구의 정병옥 가족에서 보존된 것도 망덕포구가 가진 포용력 때문이다.

광양 유일의 섬으로 남은 배알도도 망덕포구에 안겨 아름다운 섬 정원으로 변모했다.

9월 중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가 완공되면 바다 위를 걸어 배알도를 플랫폼으로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거닐 수 있게 된다.

광양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배알도, 망덕포구 등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섬진강휴게소 선별진료소 설치 등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metroseoul.co.kr

경북도, 태풍피해 3개 시군 32억 긴급지원

특별교부세, 도 예비비 투입
이철우 지사 “피해복구 최선”



태풍 오마이스 피해가 난 포항 죽장면.

/경북도

경북도가 지난 달 23~24일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피해가 난 포항시와 3개 시군에 응급복구 예산 32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태풍으로 포항 죽장면에 227.5mm 비가 내려 주택, 농경지, 도로, 교량 등 많은 수해가 났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에서 포항은 주택 189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는 54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9ha, 공공시설 850곳도 해를 입어 총 8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봉산과 보현산 인근 경주와 영천, 청송은 국고 지원 대상 기준에는 해당

하지 않지만 많은 이재민과 사유·공공 시설 피해가 나 이번 긴급지원에 포함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75억원)을 초과해 포항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기보, 부산 창업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부산경제진흥원과 손잡고 부산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5일 기보에 따르면 부산경제진흥원과 ‘창업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창업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진흥원이 추천한 창업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기술중개활동을 수행한

다. 또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엔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부산지역의 우수 창업자 발굴 협력 및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기보 이은일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기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장성군, 전남도 최초 ‘탄소제로화’ 도전

생촌마을 83개 농가 친환경 영농 실천

장성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탄소제로화에 도전한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화학 비료와 제초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성군 삼계면 생촌마을은 시범마을 사업 2년차를 맞아 탄소 제로화에 도전한다.

평립담 상류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생촌마을은 3개의 작은 마을(생촌, 성암, 죽림)로 이뤄져 있다. 20여 년 전부터 유기농 쌀을 재배하며, 친환경 영농방

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83개 농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2024년까지 5년간 6억 5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현재, 참여 농가들은 ▲완효성 비료 사용 ▲제초제 없이 제초하기 ▲천적으로 해충 방제하기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또 평립담 주변에 해바라기를 식재해, 노란꽃으로 생활환경을 새롭게 꾸미는 엘로우시티 거버넌스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바라기가 자라면 판매도 진행해 농가 소득을 늘려갈 예정이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곡성군

충의공원 관광단지 구축

10월부터 무연분묘 이장

곡성군이 충의공원에 방치된 무연분묘를 10월부터 이장한다.

곡성군은 장기미집행시설 근린공원인 충의공원을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지구로 지정해 새로운 관광 기반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동화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 인근 일대를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구축한다.

현재 충의공원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문화재청에서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

무안군, 과채즙 4종 10.4t 中 수출

4000만원 상당 농가소득 기대

전남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와 양배추 등을 가공한 과채즙 4종이 중국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다.

무안군은 지난 3일 현장에서 김산군수와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채즙 10.4t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수출된 과채즙은 올해 수확한 농산물로 가공해서 만든 즙종류 4종이다. 브로콜리양배추즙 3t과 레드비트즙 3t, 도라지배즙 4.1t, 자색양파즙 0.3t 등 모두 10.4t이다.

이번 수출로 4000여 만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지역 농특산물 수출량은 총 840t으로 양파 384t, 배추 339t, 양배추



수출 선적식 기념 사진

/무안군

63t, 팽이버섯 44t, 양파즙 10t을 미국과 대만, 덴마크 등에 수출해 6억 15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군은 연말까지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수출 농가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